

■ 인사말

통일준비는 우리의 몫입니다

연세의료원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만들어 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연세의료원 모든 구성원들에게 매우 멀고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던 “통일”을 좀 더 중요하고 가까운 “나의 일”로 생각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만들어져 온 의미 있는 3년이었습니다.

올 해 부터는 의, 치, 간, 약대 학생들에게도 통일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교과목 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졸업하고 미래의 전문가로 활동할 시점 즈음에는 분명 통일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성공적인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 믿기에, 이 일은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의 다양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구체적 활동들을 위하여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일로 너무도 바쁘시겠지만, 아주 조금의 시간만이라도 내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통일보건의료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4월 달에는 4월 25일(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의대 1층 교수회의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 계시는 윤세미 교수님이 발제를 하십니다.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서 일차 의료 시스템의 디자인과 재정 운용, 가난과 질병의 이슈 등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볼 이 시간에 모든 교직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23일(화) 오후 6시부터 오준 전 유엔 대사를 모시고 통일에 대한 국제외교 차원의 발제를 듣습니다. 미리 일정표에 표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통일은 잊기도 쉽고 우선순위의 뒷부분으로 밀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의 삶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에 가장 절박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와 서양의학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온 우리 연세의료원이 통일에 나설 때 우리나라의 통일 준비, 그리고 보건의료 영역의 통일준비가 한걸음 더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신임운영위원 - 각오와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소고

정진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연세대학교에 재직함을 매우 감사하고 산다. 오랫동안 재직한 학교를 떠나 신설로 건립한 연대 약대로 온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 캠퍼스에는 학문의 자유와 더불어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기운이 곳곳에 배인 느낌이다.

약무국의 손은선 국장의 제안으로 통일보건의료센터를 알게 되었고 처음 전우택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연세대학교의 섬김의 리더십이 말뿐만이 아님을 실감하며 매우 감동했다. 학창시절 교양과목으로 심리학은 수강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인 대상의 학문이라 생각했는데 사회심리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 강연이었다.



처음 '통일의 밤' 행사에 약학과 학과장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초대해 주시어 감사하고 좋은 기회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해 볼 각오이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은 신약개발의 모든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전공을 교수로 모시는 프레임을 유지하는데 그 중에도 사회약학, 의약품행정학, 의약품경제성평가 전공 교수를 두 분 모신 것은 기존 약학대학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일이다. 그만큼 약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졸업생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언젠가 통일이 될 때 오랫동안 정책적으로도 달리 지내온 남과 북의 의료정책 또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리 이를 대비해 의료정책, 약사 입장에서는 특히 약료정책의 준비가 매우 절실하겠다.

정치적 문화적 배경으로 매우 다른 독일이지만 우리는 학습을 미리 해 볼 대상국가도 있지 않은가. 통일되기 전 독일의 의료보장체제, 통일 후 법령정비, 구동독지역의 보건의료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과정의 보건의료변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등도 미리 정비해 본다면 통일이 '대박'이 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방 후 함흥에 사시던 어머니는 약대를 가고 싶었으나 멀리 평양에 가야 해서 가까운 원산 농화학과를 아쉽지만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다. 재학하시던 중 전쟁을 맞아 1.4후퇴 때 남하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의 세 자식, 며느리까지 전부 약사이다. 그런 함흥에 1968년에 함흥고려약학대학교가 설립되어 북한의 약사 수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남한은 연세대가 약대를 설립한 2011년에야 약대 4년제가 6년제가 되었지만 북한은 1970년도에 이미 6년제가 되어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체계가 된 것에 놀라웠다. 북한의 교육체계가 구소련을 모방하였고 사실상 구소련은 독일의 교육체계를 따라 한 것이 되니 결국 북한은 독일 교육체계가 모체인 셈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체계가 대학캠퍼스가 근본이 되는 주간정규교육 뿐 아니라 통신교육 5년제와 속성교육인 특설교육 3년제, 검정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무인력(약사와 준약사 포함) 양성을 입체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늘어나는 수요에 단시간에 대처하고 정기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우리 남한이 도와줘야 할 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배울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연구와 노력이 빛을 발휘할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포텐셜을 결집하면 통일이 '대박'이 되리라 믿는다. 전우택 센터장님께서 분단의 비용보다 통일 비용은 더 적게 든다고 하신 말씀이 다시금 생각난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가 통일을 대비한 의료센터를 만들어 노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고 자랑스럽다.

예비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추상희 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15년 제1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시 학부 4학년 학생이었던 김수향, 성윤기, 윤수현, 장경진, 정혜승, 그리고 양유리 대학원생과 함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 총 513명을 대상으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었다. 세브란스 통일의 밤 행사 이후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 및 신입간호사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바빴던 학생들이 마지막 겨울방학 동안 부지런히 정리해 준 논문 초고는 지난 해 여름이 다 되어서야 나의 손을 떠나 한국보건간호학회지에 투고 되었고, 12월 호에 실리게 되었다 [장경진 외.(2016). 예비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3), 456-469].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 및 통일보건의료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약 54%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약 56%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서 보건의료 활동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북한 의료실태 및 북한의료 용어 지식)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과는 관련 없이 매우 낮은 수준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72.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일 이후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통일보건의료 분야의 밝은 미래와 함께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세의 도전과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도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각 단과대별로 학부생을 위한 통일관련 교과목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와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는 통일보건의료 분야에서 다 학제적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도입을 통한 전문직간 협력적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논의와 시도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21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일시 : 2017년 1월 19일
- 주제 : 통일 이후 남북의료 통합 재정
- 장소 : ODA센터 회의실
- 발제 : 최성경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박사과정)
- 주요 내용: 남북 보건의료 통합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통일 후 10년간 남북보건의료 통합과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최종적으로 남북 보건의료관련 재정 통합 방안 논의
- 지정토론 : 박은철 교수, 정우진 교수, 오주환 교수

제22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일시 : 2017년 3월 28일
- 주제 : 남북한 의료통합의 과정과 과제
- 장소 : 의대회의실
- 발제 : 전우택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 주요 내용: 통일 후 남북한 보건의료를 통합하는 과정의 쟁점과 고려사항,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통일 후 10년 간 단계별 보건의료 통합 추진체계 제안





통일보건의료학 위한 새로운 연구지평의 단초를 제공하다

지난 3월 13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하버드대학교 아서 클라인만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아서 클라인만 교수는 하버드대 의과대학 국제보건 및 사회의학 교실, 정신건강의학교의 교수이자 인류학과 교수이다. 의료인류학과 문화비교 정신의학, 세계 보건, 사회의학, 의료인문학 분야 최고 권위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 300여명의 교직원과 학생, 외부 보건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의 강연과 1시간여의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다.

이번 강연은 Health Issues in Global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열려 현재 세계가 당면한 보건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광범위한 보건 이슈 중에서도 돌봄(Caregiving)과 국제개발의 관점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돌봄(Caregiving) 없는 사회는 무너져

클라인만 교수는 '돌봄'은 위험과 불확실성 하에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라고 하며 돌봄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현대 의학과 의료서비스체계를 비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측면에서 네덜란드 서부의 Leiden 의과대학교의 모델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돌봄의 기술을 익히고 다른 의료종사자들과의 협력역량을 기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학기관에서 돌봄의 질에 대한 척도와 프로세스 등 이에 대한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인적/재정적 투자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건인력들에게 돌봄의 제공자로서 역할 하도록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개도국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 치료에 1달러 투자 시 4달러 이상의 보건증진효과

이어진 두 번째 소주제에서 국제개발에 있어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투자된 1달러 당 4달러 이상의 보건 증진 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보다 배로 높은 수준임을 전하며 국제개발에 있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전했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성들이 돌봄의 주체로 활동하며 가져올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 분야에서 정신건강 분야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했다.

가깝지만 먼 북한 이웃의 돌봄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환기할 기회

강연에서 북한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개발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고려할 때 현지에서는 돌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그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떤 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강연이었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단위의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더 넓은 연구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새터민 간호사가 경험한 남한의 간호교육과정 연구

- 발주처 : 통일보건의료학회
- 연구책임자/연구기간: 추상희 교수/ 2016.10.01 – 2017.06.30
- 새터민 간호사가 경험하는 국내 간호교육의 경험을 중심으로 적응과정, 어려움, 장애요인 파악
- 공식 지원 지지시스템 구축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통일 이후 간호 교육의 통합에 필요한 간호교육의 방향과 내용 수립에 효율적인 방안 제시

기타·광고

2017년 주요 활동 계획

○ 통일관련 학생 교육 강화

- 의과대학: 3분기에 선택과목 <통일과의료> 개설 예정, 본과 3학년 전체 Grand Round에 통일의학 주제 진행
- 치의학, 약학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교육 내용 포함 검토
- 대학원 인문사회의학 협동과정 1학기 통일 관련 교과목 개설 :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들의 트라우마와 치유>
-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과 협력 교육 추진

○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일정

일시	장소	세부사항
4/25 (화) 18시	의대 회의실	발제: 윤세미 연세대국제대학원 교수 주제: Health and Development, Poverty and Disease, Designing and Financing a Primary Health System in Low-income settings
5/23 (화) 18시	교수 회의실 (종합관 6층)	발제: 오준 전 UN대사 주제: 통일과 국제외교환경
6/27 (화) 18시	의대 회의실	발제: 이홍식 전 하나의원 정신과장 주제: 탈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통일보건의료 학회 관련 소식

○ 2017 춘계 학술대회

- 주제 : 새 정부에 바란다 – 보건의료에서의 통일준비
- 일시 및 장소 : 2017.6.10(토) 14시 ~ 18시, 이화여대 ECC B146호
- ※ 사전등록 관련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참조

○ 2017 추계 학술대회 : 일시: 2017.10.14(토) ○ 학술연구 지원비 공모 : 2017.9.4(월) ~ 10.2(월)

